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주의의 영향분석 -청·장년 집단과 노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준식*, 김영범**
한림대 사회학과*,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Familism on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young Adults and Old Adults

Park Joon-Shik*, Kim Young Bum**

Dept. of Sociology, The Hallym University*, The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주의 가치관(familism)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자살생각은 가족 간 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정서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의하면 가족 관계는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가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실시된 한국인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8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표본은 1,000명이며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 대 일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은 청·장년 집단과 노인 집단에서 상이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생각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건강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노년층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청·장년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자살생각,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 내 갈등, 사회정서 선택이론

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the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because of limitation of life time, the family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for elderly than young or middle aged group. Based on this theory authors hypothesizes that the familism may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suicide ideation only in elderly group. The data for the study comes from the survey titled understanding on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people conducted in 2008.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is 1,000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face to face interview with the standardized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analysis, familism shows negative relationship with suicide ideation only in elderly group, not in young or middle adult group.

Key Words : suicide ideation, familism, conflict in family,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1309-007)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18 May 2014, Revised 27 June 2014

Accepted 20 July 2014

Corresponding Author : Young Bum Kim(The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Email: twoponej@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 인구 십만 명 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89명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웃인 일본의 21.20명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살이 크게 증가하여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 전반적인 자살률뿐만 아니라 성, 연령에 따른 자살률 역시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데[3]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은 생명의 종결이라는 점에서 개인이나 남아 있는 가족에게 가장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성, 혹은 병리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소득수준이나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건강, 심리상태, 사회관계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되어 왔다[3][4][5][6][7][8][9].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 가족관계도 자살 혹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이는 뒤르케임 [10]이 주장한 바처럼 연대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의 소멸은 자살을 증가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이혼은 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1][12]. 자살 혹은 자살생각은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 간 갈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우울을 증가시키고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15][16].

본 연구는 가족 간 갈등이 자살 혹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에 주목하여 가족주의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급속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행위

와 사고를 규정하는 가치로 남아 있다[17][18].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15][16]. 첫째,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가족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족에게 해가되는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둘째,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자녀, 부모 등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데, 가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에 따라 가족 간 갈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가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자살 혹은 자살생각 역시 감소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덧붙여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특히 노인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정서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사회관계 중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19]. 이 이론에 의하면 노인이 되면 남은 인생기간에 길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정보를 얻거나 또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 보다는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가 지향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친근한 사물이나 관계와의 접촉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노인에게 가장 친근한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 내 갈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일탈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더 높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한다면 그것의 자살생각 억제 효과 역시 노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층과 청·장년층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살 예방 정책 개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살과 가족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자료 및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기술적 분석과 다변수 분석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이어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기술한다.

1)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49.6명, 여성 21.4명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남성 20.78명, 여성 5.92명이다[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2.1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개인이 아닌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보고 가족의 이해관계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다[17][20].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가족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가족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가치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말기 인구증가, 신분제도의 완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강화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경쟁에 대응하게 되었고, 이는 곧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21]. 가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근대화 과정에서 겪어 온 극심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 이후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존 생산기반이 모두 몰락하는 참상을 경험하였다. 정부 또한 경제성장을 우선하면서 서구와는 달리 개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절대빈곤과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를 돌파하기 위해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다, 외부의 극심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정서적 쉼터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가족에 의존하고, 가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강화되어 왔다[20][22][23].

가족주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몇몇 연구[18][24][25]는 전통적 유교적 가족이념, 도구주의적 가족이념,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족이념 등 가족주의 아래 상이한 관점이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유교적 가족이념은 조선시대의 전통적 가족관과 규범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효의식이나 가부장주의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도구주의적 가족이념은 가족을 생존의 단위로 보고 가족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 이외에는 의지할 바 없었던 압축적 근대화 시기의 산물이다.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은 서구의 핵가족 이념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가족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과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치유와 정서적 유대의 공간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은 가족에 대한 의무나 헌신을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선택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개인주의적 가족이념과 관련해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의 경우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부계가족주의가 완화되었고 도구적 관점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융합되는 가족주의적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4].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태도가 서구나 동아시아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점은 몇몇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가치를 비교한 연구[26]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혼인, 동거, 출산 등 가족과 관련된 태도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규범인 노인부양의식에 대해 비교한 연구[27] 역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의식이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²⁾은 성이나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직접 가족주의를 다루지는 않지만 효 행위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효 행위와 개인주의적 효 행위를 구분하여 세대와 종교,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효 행위는 젊은 세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서양종교를 믿는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에 따라 가족주의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3]. 가족주의 가치관의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대적 학교교육의 확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그리고 가족주의를 지탱하던 경제제도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의례의 축소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즉 근대화된 사회제도의 확대로 인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물질 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다른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는지에

2) 가족주의 가치관이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는데, 노년층이 장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8].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29].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30]. 이와 함께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자살충동을 축소시킨다는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31].

2.2 자살, 자살생각 연구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1],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자살자 수나 자살률에 시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살률은 모든 연령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인다[32].

고전 사회학자인 뒤르케임(Durkheim)은 자살을 사회통합의 수준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는 자살의 유형을 사회와의 유대(social tie)부터 발생하는 통합(integration)과 규제(regulation)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통합이란 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발생하는 소속감, 애정, 돌봄의 감정 등을 의미하며, 규제란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사고에 대한 감시나 인도(guidance)를 의미한다[10]. 통합과 규제를 중심으로 뒤르케임(Durkheim)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그리고 숙명적 자살로 자살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10].

뒤르케임의 연구 이후 자살에 대한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데 집중하여 왔다. 자살은 우울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심리, 의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코호트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세대는 청년기 동안 앞선 세대나 뒤 세대에 비해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더 심한 경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살이 증가한다[6][7]. 반면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구 규모가 앞선 세대보다 큰 세대는 자살률이 감소하는데 이는 자기 세대에게 유리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가지고 인구학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3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코호트 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은 또한 사회제도, 특히 복지제도가 소득불평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이고 자비로운 경우, 그리고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경우 청년기 동안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통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청년층의 자살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9]. 경제상태가 급변하는 것 역시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60세 이상 노인집단의 자살률이 젊은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악화였다는 점 때문에 이해되고 있다[34].

자살률은 나이, 성과 같은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자살한다[8][9]. 나이나 성별에 따른 자살률 차이는 성취지향 정체성(performance-oriented self concept)의 위기를 통해 설명되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성취지향 정체성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중년기에 실업자가 되는 것은 직업의 상실과 더불어 직업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함을 의미하는데, 기존 정체성이 장기간의 헌신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기의 경우는 기존 정체성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체성을 습득하기가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정체성의 위기는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살률의 성별 차이 역시 이를 통해 설명되는데,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로 인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취지향 정체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목표 달성의 실패 가능성도 남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설명된다[8].

자살은 또한 가족 구조의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의 경우 이혼률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혼률의 영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11][12].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가벼운 생각에서 자살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살생각이 항상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자살의 전단계로 이해되고 있다[4].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역시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역시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살생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외에 혼인 상태나 학력에 따라라도 자살생각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낮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좌절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좌절이나 불안감이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생각률은 심리, 건강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데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건강상태 역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만성질환이 많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는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장년층의 경우는 혼인,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는 가구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5].

자살생각은 또한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자살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인 감염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회관계 내에서 자살을 경험하게 되면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36]. 즉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자살이나 자살 시도가 있는 경우 자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우울감이 증가되어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증가된다.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내 갈등(conflict in family)도 자살시도나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약화되고 우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6].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 간 갈등

을 완화시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15][16].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연대감, 책임감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신이 갖은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폭력, 음주, 자살 등 일탈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 간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이 감소하고 일탈 행동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자살생각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들 연구는 그러나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 간 갈등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청·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청·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삶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지 때문이다. 사회정서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의하면 남아 있는 생애 시간(life time)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행동의 동기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는 발전적 목표(expansive goal)와 현재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서적 목표(emotional goal)를 추구하고 되는데, 남은 삶의 기간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미래의 보상을 가져오는 발전적 목표보다는 현재의 보상을 가져오는 정서적 목표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반면 청·장년층의 경우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이 노인에게 비해 낮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갖는 심리적 영향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노년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가족 내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자살생각의 가능성 역시 청·장년층에 비해 더 높다.

가족 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청·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 역시 청·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장년층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자살생각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노년층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자살생각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가족주의 가치관의 수준과 자살생각의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8년 실시된 “한국인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조사”³⁾ 자료이다.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은 1,000명이며 광역시·도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표준화된 설문을 통한 일 대 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⁴⁾.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생각과 가족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⁵⁾ 본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족주의를 측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기적으로 오래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조사”는 자살생각과 더불어 가족주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다. 이 조사는 자살 충동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박통희[20]가 제안 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박통희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⁶⁾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가족주의는 가족 간 동일체적 결속, 정서적·도구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가족이기주의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앞세우는 가족우선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가족주의는 가족 간 결속을 강조하는 가치관인 반면, 가족이기주의는 가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치관이다. 본 연구는 가족 간 결속이 가족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로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 유형 중 가족주의 영역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의 본 연구에서는 의사가족주의를 제외하고 두 개 영역 9개의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가족주의를 측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9개의 항목에 대한 크론바크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794로 측정 항목간 내적 일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⁷⁾.

이외에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로 효 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셀바흐(Seelbach)[37]가 제안한 부양책임감 척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외에 독립변수로 혼인, 학력, 동거가족, 소득, 경제활동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로 불안/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Variables in the Analysis

variables	contents
suicide ideation	dummy variable, 0=no 1=yes
gender	dummy variable, 0: female, 1: male
age	continuous variable
subjective health	dummy variable 0: good, 1:moderate, 1:bad
generation	young&middle adult: 20-64, old adult: 65 or over

3)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의뢰로 현대리서처에서 수행되었다.

4) 20세 이상 성인인구수에 비례하여 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수행할 경우 65세 이상 고연령층은 코호트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크기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연령층을 10살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200명씩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인구수를 7개의 광역시와 8개의 광역 도로 구분한 후 인구 수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8개의 광역 도는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5) 대표적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사에는 가족주의 척도가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6) 의사가족주의는 가족의 개념을 가족 외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가족주의 항목 6개의 크론바크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846이며 가족이기주의는 .870이다.

marriage	dummy variable, 0: never married or divorced, 1: married
cohabitation with children	dummy variable, 0: no, 1: yes
religion	dummy variable, 0: no religion 1: buddhism, confucianism, the chondo-kyo 1: roman catholicism, protestant
family income	dummy variable, 0: less 3,000,000won, 1: 3,000,000won or over
region	dummy variable, 0: rural area, 1: small or middle city, 1: mega city
economic activity	dummy variable, 0: no, 1: yes
year of schooling	continuous variable
sum of familism	continuous variable, min score: 9, max score: 45
familism	continuous variable, min score: 6, max score: 30
family egoism	continuous variable, min score: 3, max score: 15
filial piety	continuous variable, Seelbach's scale
depression	continuous variable, level of depressive symptom 1: no, 2: low, 3: extreme
stress	continuous variable, level of stress 1: no, 2: low, 3: moderate, 4: extreme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 유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항 종속변수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활용해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로짓 분석은 종속변수가 사건의 발생(1)과 사건의 비발생(0)으로 구성된 경우 독립변수가 사건발생확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많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1.4%이다. 평균 학력은 10.36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다(<표 2> 참조).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ample

Characteristics	frequency(%)		
	total	suicide ideation	
		no	yes
gender			
female	547(54.70)	459(83.91)	88(16.09)
male	453(45.30)	377(83.22)	76(16.78)

generation				
young · middle adult	592(59.20)	499(84.29)	93(15.71)	
old adults	408(40.80)	337(82.60)	71(17.40)	
subjective health				
good	532(53.20)	464(87.22)	68(12.78)	***
moderate	287(28.70)	243(84.67)	44(15.55)	
bad	181(18.10)	129(71.27)	52(28.73)	
marriage				
divorced/widowed	386(38.60)	312(80.83)	74(19.17)	
married	614(61.40)	524(85.34)	90(14.66)	
cohabitation with children				
no	343(34.3)	282(82.22)	61(17.78)	
yes	657(65.7)	554(84.32)	103(15.68)	
religion				
no	388(38.80)	318(81.96)	70(18.04)	
oriental	286(28.60)	238(83.22)	48(16.78)	
western	326(32.60)	280(85.89)	46(14.11)	
family income				
<3,000,000 won	580(61.64)	466(80.34)	114(19.66)	***
>3,000,000 won	361(38.36)	321(88.92)	40(11.08)	
region				
mega city	450(45.0)	374(83.11)	76(16.89)	
small/middle city	422(42.2)	347(82.23)	75(17.77)	
rural area	128(12.8)	115(89.84)	13(10.67)	
economic activity				
no	463(46.30)	384(82.94)	79(17.06)	
yes	537(53.70)	452(84.17)	85(15.83)	
year of schooling,	10.36(4.02)	10.45(4.93)	9.93(4.82)	
filial piety, M(SD)	21.11(3.92)	21.05(3.94)	21.45(3.81)	*
depression, M(SD)	1.22(.45)	1.16(.39)	1.53(.58)	***
stress, M(SD)	3.71(.74)	3.64(.72)	4.01(.70)	***

* p<.05, ** p<.01, *** p<.001

3. 연구결과

3.1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자살생각 유무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 합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살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주의 가치관 합계 점수가 34.03인 반면, 있다는 응답자는 33.04점으로 자살생각 유무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주의 척도의 두 하위 범주들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주의의 경우는 자살생각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가족이기주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이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familism and suicide ideation

suicide ideation	sum of familism M(SD)	familism M(SD)	family egoism M(SD)
no	34.03(5.03)	24.81(3.43)	9.22(3.14)
yes	33.04(4.98)	23.99(3.74)	9.05(2.91)
t-score	2.21*	2.75**	.66

* p<.05, ** p<.01, ***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응답을 성, 연령,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누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 건강과 소득에 따라서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66%인 반면 소득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11.08%로 나타나 소득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정신건강 변수인 불안/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도 자살생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건강에 따라서도 자살생각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자살생각을 한 비율이 28.73%인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서는 12.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표 2> 참조).

3.2 로짓 분석: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변수 분석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모델은 전체 집단에 대한 모델과 함께 청·장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주요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과 나이는 세 모델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것으로 측정방법이나 통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일부 해외 연구의 경우 성이나 나이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38][39]. 성,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variables	total sample	young · middle adult	old adult
	b(se)	b(se)	b(se)
gender(0=female)	.248(.223)	.240(.282)	.364(.413)
age	.008(.008)	.010(.014)	.017(.031)
subjective health(0=good)			
moderate	.073(.238)	.297(.289)	-.482(.439)
bad	.506(.280)	.982(.425) *	.106(.400)
marriage (0=no spouse)	-.437(.217) *	-.439(.319)	-.400(.385)
cohabitation with children (0=no)	.210(.239)	-.121(.361)	.503(.362)
year of schooling	.018(.032)	.005(.050)	.007(.045)
family income (0<3,000,000)	-.693(.238) **	-.676(.256) *	-.807(.537)
economic activity (0=no)	.223(.234)	.280(.335)	.075(.403)
region (0=rural area)			
mega city	.816(.367) *	.253(.483)	1.44(.579) *
small/middle city	.791(.363) *	.218(.483)	1.38(.561) *
religion(0=no)			
oriental religion	-.119(.248)	-.300(.351)	.235(.394)
western religion	-.310(.244)	-.296(.306)	-.087(.437)
depression	1.187(.203) ***	1.230(.287) ***	1.110(.308) ***
stress	.760(.158) ***	.797(.222) ***	.727(.237) **
filial piety	.060(.028) *	.042(.034)	.129(.055) *
familism	-.059(.028) *	-.052(.036)	-.157(.060) **
family egoism	-.014(.033)	-.047(.045)	.028(.057)
	N=939 Chi ² =139.39***	N=571 Chi ² =82.52***	N=368 Chi ² =71.24***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경우 전체 집단과 청·장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노인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청·장년 집단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300만 원 미만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는 반대로 전체 집단과 노년층 집단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청·장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농촌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가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생각과 지역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왜 자살생각에 차이가 나는지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노인집단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노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선행 연구[40]에 의하면 종교 유무보다는 종교행사에 대한 참석률과 같은 헌신정도가 자살생각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점에서 종교의 영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헌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강관련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의 경우 청·장년 집단에서 좋음에 비해 나쁨의 경우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우울과 스트레스는 모두 자살생각과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에 있어서 정신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기할 점은 부모부양 책임감의 영향이 집단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청·장년 집단의 경우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집단의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을 크게 느낄수록 자살생각의 확률이 높아진다. 부모부양책임감의 영향은 노인집단의 경우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노인의 경우 부모부양 책임감이 큰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클 수 있다. 선행 연구[41]에 의하면 부모부양책임감과 자녀로부터의 지원 사이의 괴리는 삶의 행복감이 감소하고 우울 증상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살생각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면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 범주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장년층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의 두 하위 범주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외는 달리 노년층의 경우 가족주의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가족이기주의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노년층의 경우 가족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이 집단에 따라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앞서 제시한 가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주의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 내 갈등의 차이가 자살생각의 차이로 이어진 반면, 청·장년층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가족주의의 차이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차이를 보여도 그것이 자살생각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의 경우 가족 내 결속을 강조하는 반면, 가족이기주의의 경우는 가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20].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긍정적 기능은 가족 내 결속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이며, 후자의 경우는 가족 내 갈등의 완화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가족주의가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면 가족주의가 내면화될수록 가족 간 갈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살생각 역시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가족주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주의가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사회정서선택이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청·장년 집단과 노인 집단에서 가족주의의 영향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주의의 영향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청·장년 집단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지만 노년층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 외에 집단에 따라 상이한 요소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청·장년 집단에서는 건강이나 소득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반면 노인 집단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 역시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요인들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우울, 스트레스 등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가 자살생각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주의나 부양책임감이 노년층에서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노부모의 친밀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노인 수발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부모-자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42]이라는 점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부양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인 대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43]에서 짚은 야근, 늦게 까지 이어지는 회식, 짧은 휴가 등은 가정생활을 경제활동과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러한 관행은 자녀의 자유 시간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성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도 있다. 노인관련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청·장년층의 경우 가족주의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 건강이나 소득 등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이나 소득 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 예로 청년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년층의 경우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생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집단에서 나타나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아마도 농촌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농촌의 마을 공동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익숙한 관계로 구성된다. 농촌의 노인은 익숙한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독감,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잦은 이동,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등 익숙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도시의 노인이 익숙한 공동체 혹은 그와 유사한 사회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구축된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경로당은 63,251개가 설치되어 있다[43].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로당이라는 점에서 이들 시설을 활용해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13(HRF-201309-007).

REFERENCES

- [1] OECD,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p. 236-237, 2012.
- [2] Chong-Sup Kim, Economic crisis and suic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three latin american countrie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3, No. 3, pp. 46-65, 2010.
- [3] Eunok Park and Su Jung Choi,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Korean adul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2 No. 2, pp. 88-96, 2013.
- [4] Hyun Soon Kim and Byeong Seok Kim, A comparative study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2, pp. 325-343, 2008.
- [5] Jee Hwan Mo and Jin Hee Bae,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2, pp. 121-145, 2011.
- [6] R. A. Easterlin,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Chicago: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1987
- [7] J. Stockard, and R. M. O'Brien, Cohort variations and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rates over-time: explaining variation in youth suicid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Pacific Sociological Association, 1999.
- [8] C. Girard,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No. 4, pp. 553-574, 1993.
- [9] F. C. Pampel, and J. B. Williamson, Age patterns of suicide and homicide mortality rates in high-income nations, *Social Forces* Vol. 80, No. 1, pp. 251-282, 2001.
- [10] E. Durkheim, *Suicide*, Free Press, 1997.
- [11] Seong Yong Kim,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facto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8, pp. 181-205, 2004.
- [12] Jung-Kyun Ryu, Regional differentials in elderly suicide rate: The focusing on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1995-2005,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1, No. 2, pp. 21-44, 2008.
- [13]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valence of Conflicts and Social Pathologies at Individual Level and Counter Measures in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14] M. Waern, E. Rubenowitz, and K. Wilhelmson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old elderly" *Gerontology*, Vol. 49, pp. 328-324, 2003.
- [15] S. C. Shagle and B. K. Barber,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5, No. 4, pp. 964-974, 1993.
- [16] J. B. Peña, J. A. Kuhlberg, L. H. Zayas, A. B. Baumann, L. C. Gulbas, Hausmann-Stabile, and A. P. Nolle, Familism, family environment, and suicide attempts among latino Youth,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 41, No. 3, pp. 330-341, 2011.
- [17] Jeong Hye Choi, Familism,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Vol. 37, No. 9, pp. 85-101, 1999.
- [18] Kyun-Sup Chang, Accidental pluralism in family ideology: compressed modernity and Korean families,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24, No. 2, pp. 161-202, 2001.
- [19] Laura L. Carstensen, H. H. Fung, and S. T. Charles,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Vol. 27, pp. 103-123, 2003.
- [20] Tong Hee Park, Construction of Korean familism: familism, family egoism, quasi- familism, *Family and Culture*, Vol. 16, No. 2, pp. 93-125, 2004.
- [21] Seok-Choon Lew, Woo-Young Choi and Hye-Suk Wang, Confucian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Korea - Focused on filial p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9, No. 6, pp. 52-86, 2005.
- [22] Yong Shin Park, *History and Social Change*, Seoul: Minyoungsa, 1987.
- [23] Sung Yong Lee, Familism and filial p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9, No. 2, pp. 215-240, 2006.
- [24] Hye-Kyung Kim, Failure of the patrilineal stem family system?: familialism and individualization among the generation of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7, No. 2, pp. 101-141, 2013.
- [25] Bo-Kyoung Kim, A confucian view of suicide and addiction in contemporary Korea,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Vol. 25, pp. 153-181, 2012.
- [26] Ki-Soo Eun,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values: Focusing on sex and generational difference,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3, pp. 1-31, 2006.
- [27] Ji Hyun Cho, Se-Geun Oh and Chulho Ya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supporting for the elderly in East Asia: Focused on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2, No. 1, pp. 7-42, 2012.
- [28] Sun Wha Ok, *Research : a study on familism in*

- rural families, Journal of the Home Economic Association, Vol. 28, No. 3, pp. 161-170, 1990.
- [29] Jae Hong Heo, The effects of familism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ediation of self este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1769-1782, 2009.
- [30] Ok Kyung Yang, Familism and welfare consciousnes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1, pp. 229-256, 2002.
- [31] Hyun Sook Yoon, Jae Yeon Park and Yeon Ok Lim, Suicidal impulse caused by stress in Korea: focusing on mediational effects of existent spirituality,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Vol. 41, No. 4, pp. 81-105, 2010.
- [32] Jae Hyun Jin and Hyu Yon Go, The Korean suicide rate trend by population group comparing with the OECD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 pp. 141-154, 2013.
- [33] Ji Yoen Lee and So Yon Kim, Suicide in Korea: Age, period, cohort effect 1983-2003,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4, pp. 83-94, 2010.
- [34] Ki-Soo Eun,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uicide rate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8, No. 2, pp. 97-129, 2005.
- [35] Eun Jung Kang,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by age group,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9, pp. 81-86, 2006.
- [36] Min-Ah Lee, Seokho Kim, Jae Hyun Park and Eun-Jung Sim,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cial relationships and fami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2, pp. 61-84, 2010.
- [37] W. C. Seelbach,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Vol. 27, No. 4, pp. 341-350, 1978.
- [38] A. E. Cosby, P. C. Mark, J. S. Jeffrey, Incid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1994"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9, No. 2, pp. 131 - 140, 1990.
- [39] R., Vilhjalmsón, G. Kristjansdóttir, and E. Sveinbjarnardóttir, Factor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in Adult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Vol. 33, pp. 97-103, 1998.
- [40] S. Stace and D. Lester, The effect of religion on suicide ide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26, No. 4, pp. 168-170, 1991.
- [41] Young Bu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support exchange with childre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n Regional Sociology, Vol. 13, No. 2, pp. 173-194, 2012.
- [42] Hee Kyoung Jang and Young Hye Kim,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of the adult caregiv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4, No. 3, pp. 358-367.
- [43]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Korea. <http://www.oecd.org/els/family/>, 2011.

박 준 식(Park Joon-Shik)



- 1983년 2월 :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문학석사)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문학박사)
- 1993년 2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동사회학, 지역사회학, 사회노년학

· E-Mail : jsp@hallym.ac.kr

김 영 범(Kim Young Bum)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문학석사)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부교수
- 관심분야 : 복지사회학, 사회노년학

· E-Mail : twoponej@gmail.com